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김 상 환 | 노동부 고용지원과 사무관

I. 최근 고용동향

1998년 12.2%까지 높아졌던 청년층 실업률은 그 이후 안정화되어 오다가 2003년부터 경기침체로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2003년 11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8.0%로써 전체 실업률 3.4%의 2배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OECD 국가의 청소년(15~24세) 실업률이 전체실업률의 1.9배(1998~2001년 평균)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하여도 높은 수준이다. 취업난으로 인하여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계층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청년실업의 체감도는 통계상 실업률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청년 실업자 중 대학졸

업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학력 청년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연령별 근로자 수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청년층 일자리가 더 크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 실업이 더욱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II.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

청년실업의 원인을 인력의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인력의 양적 증가와 질적 저하에서 그 주요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95년 이후 대학실업이 늘어나고, 대학진학률이 증가하면서 대졸 청년 인력의 공급이 크게 증가하였다. 대학

〈표 1〉 대졸 실업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

구 분	1992년	1997년	2000년	2001년	2002년
청 년	333	322	403	388	342
대졸 이상 (비 중)	90 (27.0)	90 (28.0)	121 (30.0)	127 (32.7)	123 (36.0)

* 전체 근로자 수 변동: 1996년 1481천 명 → 2001년 1341천 명(△9.5%)

* 청년층 근로자 수 변동: 1996년 644천 명 → 2001년 432천 명(△32.8%)

〈표 2〉 연령별 근로자 수 추이

(단위 : 천 명, %)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전 체	1481	1482	1365	1391	1398	1341
15~29세	644 (43.5)	627 (42.3)	529 (38.8)	507 (36.4)	495 (35.4)	432 (32.2)
30~44세	655 (44.2)	667 (45.0)	661 (48.4)	702 (50.5)	710 (50.8)	709 (52.9)
45세 이상	182 (12.3)	188 (12.7)	175 (12.8)	182 (13.1)	193 (13.8)	200 (14.9)

* 자료 : 노동부, 고용보험DB, 300인 이상 사업장

* 주 : ()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표 3〉 대졸자 수 · 대학 수 · 대학진학률 추이

(단위 : 천 명, 개, %)

구 분		1985년	1995년	2003년
대(전문대)졸자 수		215	324	505
대(전문대)학 수		238	305	354(2002년)
대학 진학률	일반계	58.8	72.8	90.1
	실업계	13.3	19.2	57.6

정원의 양적 팽창으로 대학졸업생 수는 크게 늘어났으나, 산업계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대학졸업생은 자신의 능력에 부합하지 않는 좋은 일자리(decent job)를 주로 찾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신규대졸자 : 1995년 32만 명→ 1998년 43만 명(34.3% 증가)→ 2002년 48만 명(11.6% 증가)

반면, 대졸 인력의 질적 수준은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공계 졸업생의 취업률이 50~60% 수준에 불과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필요한 기술인력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학과별 정원과 교과과정 등의 탄력적 조

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다.

※ 신규취업자의 33%가 전공과 업무가 불일치
(한국노동연구원, 2002년)

수요 측면에서 보면 대학졸업자들이 선호하는 버젓한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을 들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주요 기업들의 경우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는 감소한 반면, 기업들은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의 인적자원 활용 패러다임이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는(Make) 방식에서 우수인재를 외부에서 수혈하는(Buy)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선호에 따라 숙련 인력이 대

〈표 4〉 대학교육과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간의 격차에 대한 조사 (단위 : %)

구 분	매우 적다	적다	보통이다	많다	매우 많다
인사담당자	2.2	13.4	43.6	34.5	6.2
대졸사원	1.6	9.5	23.5	53.4	12.0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기업의 대학교육만족도에 대한 조사연구, 2001.

〈표 5〉 주요 기업들의 채용 추이 (단위 : 천 명, %)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취업자 수	1573	1407	1321	1319	1234	1247
신규채용자 수	218	164	256	270	185	166
경력자 채용 비중	40.7	54.9	73.3	78.1	78.7	81.8

* 30대 대기업 · 공기업 · 금융사무직 종사자

〈표 6〉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 및 부족인원 (단위 : 명, %)

	사무관리	전문가	기술 및 준전문가	기능직	단순노무	서비스직	판매관리	전 체
부족인원	17,224	7333	17,252	72,987	83,768	527	5862	204,951
부족율	4.1	9.3	9.1	10.8	11.6	3.0	6.8	9.4

*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인력부족 여전히 심각”, 2002. 9. 26 보도자료.

기업으로 유출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 경력직 채용 추이 : 1997년 50.1% → 2002년 85.7%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보수와 근무환경이 취약하여 청소년들이 근무하기를 꺼리고 있으며, 2003년 3월 현재 중소기업체의 인력부족율은 8.98%(사무직은 4.50%)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고학력자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3D 업종이나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부족과 취업난이 병

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직업정보 등 노동시장 인프라 부족으로 취업소요기간의 장기화와 잦은 직장 이동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만여개 직업 중 고교생이 선호하는 직업은 교사, 의사, 공무원 등 전문적인 17개 직업에 불과하여 우리나라의 직업지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알 수 있다. 직업지도와 직업정보제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는 데 걸리는 평균 구직기간이 12개월이고,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23개월에 불과한 실

정이다. 정부에서는 2003년에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3612억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제공 및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53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Ⅲ.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주요 내용

경제연구소들은 2004년도 실업률이 3.4% 내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청소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의 2배 수준임을 고려하면 2004년도 청소년실업률은 7%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청소년실업 문제는 개인적 좌절과 함께 고급노동력의 사장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의 하나이다.

청소년실업률이 높은 주요 원인은 최근 대학진학률의 증가,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수요와의 괴리, 근로자 수시 채용, 경력직 위주의 채용으로 변화, 진로지도 및 직업상담 기능의 미흡, 구직자의 대기업 취직 선호 현상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들어 기업들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신규 대졸자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추세로 변화(1997년 50.1% → 2002년 85.7%)하여 신규 청소년 미취업자들의 취업 문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동부에서는 2002년부터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노동부가 시행하는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하여 직업능력 개

발과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청소년 고용촉진사업이다.

청소년의 다양한 직장체험 욕구를 충족하여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과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이다. 즉,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현장체험을 통하여 경력을 쌓게 하고 학칙에 따라 학점도 딸 수 있게 하는 일석이조의 청소년 고용촉진 사업으로 취업지원제(인턴제)와 연수지원제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3년에는 11월 말 현재 약 6만 명이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취업지원제 6천 명, 연수지원제 5만4천 명)하였으며, 취업지원제 수료자 중 약 90%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청소년의 실업 감소와 기업의 우수인력 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전국 64개 대학에서 연수지원제 참여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대학에서도 재학생의 연수지원제 참여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2004년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실시 예상 규모는 지난해(48천 명, 643억 원)보다 많은 51천 명(예산 738억 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대학 및 연수기관이 연수 참여 이전에 연수생의 연수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장매너, 프리젠테이션기법, 문서작성법, 조직문화의 이해 등의 재학생 직무훈련(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2003년부터 그 소요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지원수준을 높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이 주도적으로 고용안정센터 및 기업과 연계하여 재학생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연수지원제로 인정하여 대학의 참여를 촉진하고 산학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이 기업과 연계하여 산학협력 차원에서 취업지원제 참여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협력 지원요원으로 대학에서 취업지원제 인턴을 2명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연수지원제 참여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대학 및 산학협력 실적이 있는 대학에는 인턴 및 연수생을 추가로 더 배정함으로써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해 64개에 이르고 있는 학점 인정 대학을 올해는 100개로 확대 추진하여 학생들이 학기 중에도 연수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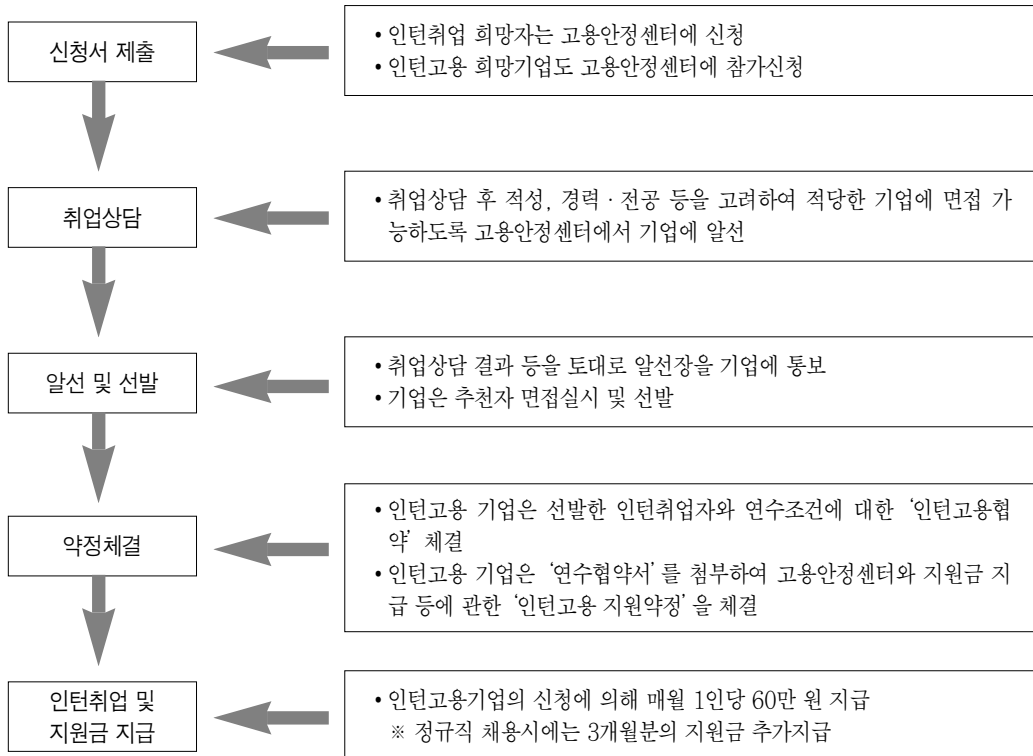
2004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취업

지원제'와 '연수지원제'를 통한 지원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취업지원제

■ 지원 자격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제대 군인은 33세)의 청소년이 참여 대상자이며, 인턴 채용 업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기업이 그 대상이다. 대학의 산학협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도 인턴 2명의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1) 취업지원제

■ 지원 내용

미취업 청소년을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는 인턴 1인당 월 60만 원씩을 3개월간 지원하고, 3개월 인턴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 채용시 3개월분 18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 신청 절차

취업지원제를 통해 인턴으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청소년은 인턴구직표, 인턴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턴구인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인턴의 선발

기업은 반드시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알선을 거쳐서 인턴을 선발하여야 하며, 알선자 중에서 자율적으로 인턴사원을 선발하게 된다. 다만, 기업과 대학의 산학협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과 대학이 산학협력협정을 통하여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생략하고 인턴을 채용하여도 고용안정센터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하게 된다. 기업에서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의 30% 이내이다.

2. 연수지원제

■ 지원 자격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미취업 청소년이 연수지원제에 참여 대상이다. 연수대상기관은 기업, 대학, 비영리 법인, 사회단체, 연구소 등의 업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이다.

■ 지원 내용

연수지원제를 통하여 연수를 받는 연수생에게는 월 30만 원의 수당이 6개월 한도로 지급된다. 연수 수료생에게는 노동부장관 명의의 연수인증서를 발급하고, 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 신청 절차

연수지원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혹은 대학에 연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수지원제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대학 등의 기관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 연수지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연수생의 선발

연수신청기관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알선 받은 대상자 중 자율적으로 연수생을 선발할 수 있고, 고용안정센터나 대학에 연수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직접 연수생을 선발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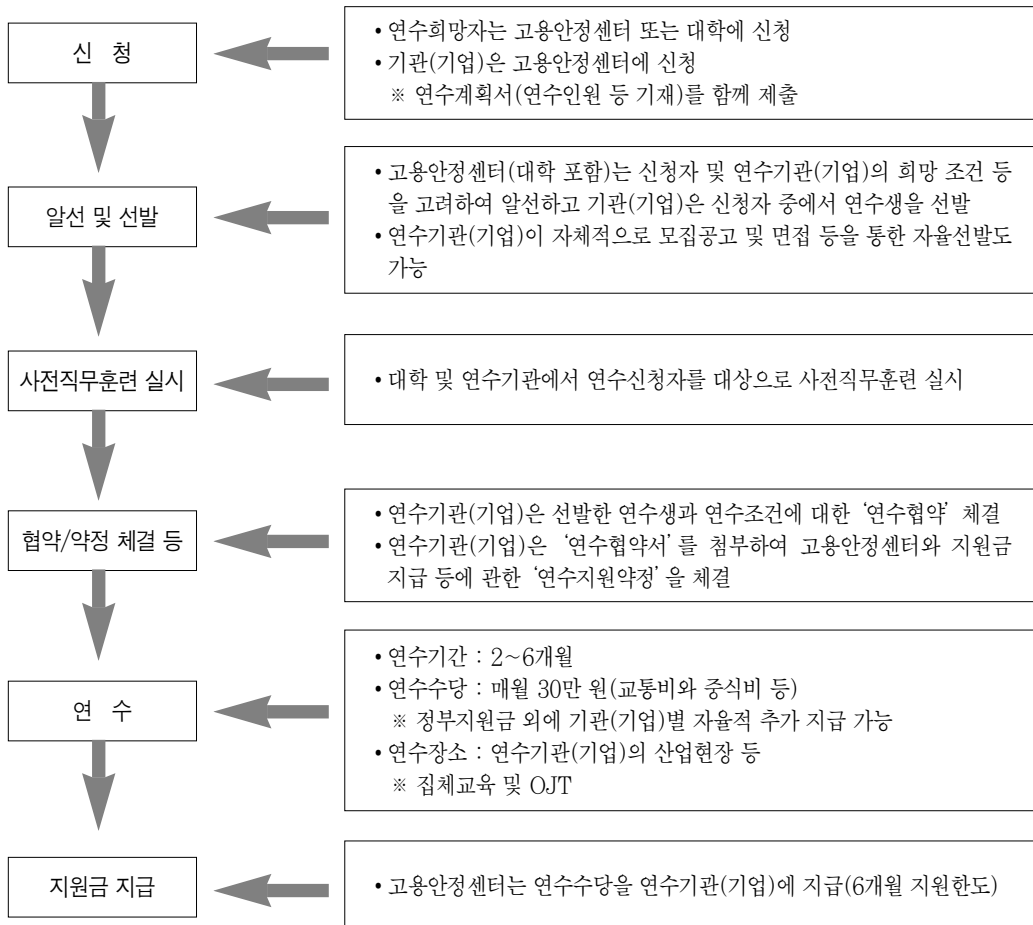
노동부의 직장체험프로그램과 같은 연수제도(Internship)는 선진 각국에서 이미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서, 청소년들에게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여러 가지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하는 자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를 가리지 않고 사회경험에 대한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며, 연수기관의 Name Value보다는 본인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적정한 곳을 찾아서 연수경험을 쌓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업에서는 연수제도를 신규사원채용의 방편으로 사용하여 연수기간 동안 근무능력, 조직화합능력 등을 판단하고 있는

며, 백악관, 국무성, 각 주정부 등 공공기관에서도 무급연수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시험고용제도, 영국의 New Deal 제도, 캐나다의 Public Sector Youth Internship Program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가 직접 주관하여 이러한 연수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수립, 직업탐색에 있어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과 같은 연수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각국의 공통된 인식을 보여 주는 실례이기도 하다.

최근의 경력직 채용 관행에 따라서 'No Experience - No Job'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에 기업과 대학, 그리고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여 기업들은 유능한 인재탐색의 기회로 활용하고, 청소년들은 현장체험 및 정규직 채용 기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대학교육



[그림 2] 연수지원제

〈표7〉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주요 지원 내용(안)

<p>'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선택과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는 한편, 능력개발 및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수지원제'와 '취업지원제'로 나누어 시행</p>	
연수 지원 제	취업 지원 제
<p>연수지원제는 최근 경력자 채용 관행에 맞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업,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현장경험을 통하여 직업능력 향상 및 진로설계의 기회를 갖게 하고, 기업 등에는 우수한 인재 탐색기회 제공</p>	<p>취업지원제는 청소년이 기업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공</p>
<p>■ 지원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수 참여 희망 기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과 그 부속 기관,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연수를 희망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의 미취업 청소년 ※ 1974.1.1~1986.12.31 출생자 	<p>■ 지원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턴 채용 희망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인턴 취업을 희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만 18세 이상 만 30세(체대군인은 33세) 이하인 자 ※ 1974.1.1~1986.12.31 출생자
<p>■ 지원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수참가 기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수기관(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우수한 인재 탐색·선점 연수참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월~6개월 연수기간 동안 월 30만 원의 연수수당 지급 연수수료생에게 노동부장관 명의의 '연수인증서'를 발급, 취업시 경력으로 활용 가능 대학에서 학칙에 따라 학점 인정 가능 	<p>■ 지원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턴 채용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수 3개월 동안 인턴 1인당 매월 60만 원을 지원, 이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추가로 3개월분(180만 원)을 지원 인턴 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정부지원금(월6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연수 중 또는 연수 종료 후 정규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음.
<p>■ 신청 서류(고용안정센터에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수참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수참가신청서 연수참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수신청서 	<p>■ 신청 서류(고용안정센터에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턴 채용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턴구인표 인턴 참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턴구직표
<p>■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수지원제에 참여하는 연수생은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으며, 연수시간은 1일 4시간 이상, 1주 20시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p>■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드시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거쳐 채용하여야 하며, 정규직 채용 내정자/이미 채용되어 근무 중인 자/당해 기업에서 이직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기업이 산학협력협약을 통하여 적격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고용안정센터의 알선 생략